

무실 세트 무적의 텐·텐·텐...이토록 완벽한 남자들

양궁 남자 단체전, 프랑스 5-1로 꺾고 3연패 위업
김우진, 3개 대회 연속 금·이우석 6발 모두 10점
김제덕, 별 손에 앉아도 강심장 샷으로 10점 명중

‘3인 3색’ 남자 양궁 대표팀이 ‘텐텐텐’으로 여자 대표팀에 이어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김우진(청주시청·32), 김제덕(여천군청·20), 이우석(코오롱·26)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30일 프랑스 파리의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개최국 프랑스를 상대로 5-1(57-57 59-58 59-56) 승리를 거두고 대회 3연패를 차지했다.

한국은 준결승에서 중국의 카오원차오, 리중위안, 왕옌을 상대로 5-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한국은 장 찰스 발라동, 토마스 시로, 밥티스태 아디스로 구성된 프랑스 팀과 금메달을 두고 치열한 마지막 승부를 펼쳤다.

1세트에서 57-57로 프랑스와 1점씩 나누 가진 한국은 2세트에서 ‘10’의 행진을 펼쳤다.

9점으로 향한 김우진의 두 번째 화살을 제외하고 나머지 5발이 모두 10점에 꽂히면서 한국은 2세트 59점을 기록했다.

처음 두 발을 9점에 쫓던 프랑스는 이어진 4발 모두 10점을 쏘면서 58점으로 한국을 압박했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3-1로 시작된 3세트에서 프랑스가 9점 세 발, 10점 세 발을 쏘았다.

한국은 9점 한 발과 10점 네 발을 쏘아 우세에 8점이 필요했지만 노련한 김우진은 마지막 발을 과녁 한 가운데에 꽂으면서 한국 남자 양궁의 단체전 3연패를 확정했다.

전날 여자 대표팀이 올림픽 10연패를 명중시킨 데 이어 남자 대표팀도 금메달을 쏘면서 한국은 ‘양궁 강국’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렸다.

‘만행’ 김우진은 올림픽에 세 번 출전에 세 번 연속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우진은 이전 두 번의 올림픽 단체전 우승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대회 3번 사수로서 든든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회의 금메달을 확정하는 마지막 발에서 10점을 명중시킨 김우진은 2016 리우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에 이어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하며 올림픽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파이팅 막내’ 김제덕은 성인이 되어 다시 선 올림픽 무대에서 또 한번 정상에 올랐다.

2016 리우올림픽 당시 김우진을 보며 꿈을 키운 초등학교 6학년 김제덕은 이번 승리로 김우진과 함께 2020 도쿄 올림픽에 이어 그의 두 번째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도쿄 올림픽 당시 김제덕은 고등학생 신분이었다.

김제덕은 도쿄에서 처음 도입된 양궁 혼성 단체전에서는 안산(광주은행텐텐양궁단·23)과 호흡을 맞춰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도쿄에서 포효하는 듯한 웅원으로 화제가 됐던 김제덕은 이번 대회에서도 ‘파이팅’ 기합으로 힘을 불어 넣으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제덕은 최근 IOC인터뷰를 통해서 “‘파이팅’을 크게 외치면 마음에 갖고 있던 딱 잡는 그런 느낌이 땀 뚫린다”고 전했다.

힘찬 응원을 외친 김제덕은 사선에서는 별이 날아드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회 준결승 중국과의 대결 3세트에서 김제덕이 마지막 발 활 시위를 당겼을 때, 별 한 마리가 손과 얼굴 근처를 맴돌았지만 김제덕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10점을 명중했다.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 양궁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한국 대표팀 왼쪽부터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이 태극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3수 끝에 이번 올림픽 무대를 밟은 이우석은 간절히 바라던 첫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우석은 2016 리우 올림픽 선발전에서 4위로 탈락하며 아쉬움을 삼켰고, 2020 도쿄 올림픽 선발

전 ‘바늘 구멍’을 통과했지만 코로나19로 대회가 1년 미뤄지면서 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다.

대회가 연기되면서 선발전이 재실시됐고, 태극마크를 다는 데 실패했다.

마침내 올림픽에 출전한 이우석은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6발 모두 10점을 명중하며 한국 대표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산전수전’ 다 버렸는데... 아쉽다! 4위

펜싱 사브르 여자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최세빈이 우크라이나 올라 카를란에게 패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女 펜싱 사브르 ‘전남도청’ 최세빈, 세계 1위도 꺾고 대역전극 펼치기도

최세빈(전남도청)이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해 4위를 했다.

최세빈은 30일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여자 사브르 개인전 준결승에서 올라 카를란(우크라이나)에게 14-15로 져 4위를 마쳤다.

2000년생으로 개인 세계랭킹 24위인 최세빈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와 황재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여자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 획득에 힘을 보탠 선수다.

국제대회 개인전에선 지난해 튀니스 그랑프리 동메달이 유일한 입상인 그는 생애 첫 올림픽에서 4강에 진입하는 선전을 펼쳤다.

내친김에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김지연의 금메달 이후 12년 만에 여자 사브르 개인전 입상까지 노렸으나 한끗 차로 불발되고 말았다.

이번 첫 경기인 32강전에서 타티아나 나츨리코프(미국)를 15-14로 꺾은 최세빈은 16강전에서 현재 세계랭킹 1위이자 2022-2023년 세계선수권 대회 개인전 우승자인 에우라 미사키(일본)를 15-7로 격파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발이 빠른 에우라를 상대로 같이 속도를 높이려 하기보다는 조절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

략이 통하면서 압승을 거뒀다.

대표팀 동료 전하영(서울특별시청)과 치른 8강전에선 1-8까지 끌려다니고도 대역전극을 펼쳐 4강에 안착, 돌풍을 이어갔다.

하지만 세계랭킹 5위이자 2021년 도쿄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마농 아피타-브뤼네(프랑스)와의 준결승전에선 초반 공격이 여러 차례 짚게 들어가며 1-5로 밀리기 시작하더니 12-15로 져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렸다.

2012년 런던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한 베테랑 하를란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다소 체력이 떨어진 하를란을 상대로 초반에 빠른 공격이 통하며 1라운드 8-3으로 앞섰다.

하지만 11-5로 벌린 뒤 하를란에게 타이밍을 빼앗기기 시작하며 11-12로 역전을 허용했고, 이후 동점과 한 점 차를 오가던 승부에서 끝내 관록의 하를란을 넘지 못했다.

하를란은 올림픽 개인전에서만 3번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2022년 2월부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이번 올림픽 첫 메달도 안겼다.

/연합뉴스

허미미 “일장기 대신 태극마크, 할머니 유언”

유도 여자 57kg급 은메달...국적 바꾸고 3년만에 결실
독립운동가 허석 후손...“애국가 다 외워왔는데 다음엔 금”

재일동포 허미미(21·경북체육회)의 인생은 그의 할머니에 의해 바뀌었다.

할머니는 2021년 “한국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하길 바란다”는 말을 허미미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허미미는 그 길로 바로 경북체육회 유도팀에 입단했고 이듬해부터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무대를 누볐다. 그리고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여자 57kg급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유도에 첫 메달을 안겼다.

결승전을 아쉽게 마치고 만난 허미미는 “(할머니에게) 오늘까지 유도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고 싶어요”라고 씩씩하게 말했다.

허미미는 “아쉽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결승전까지 나가서 정말 행복했다. 메달을 딴 것도 너무 행복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애국가 가사를 미리 외워왔던 허미미는 “못 불러서 아쉽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꼭 부르고 싶다”고 4년 뒤를 기약했다.

허미미는 “(4년 뒤엔) 나이를 먹었을 테니까 체

력이 더 좋을 것 같다. 다음 올림픽에선 금메달을 꼭 딸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허미미는 이날 결승 연장전에서 나온 세 번째 지도 판정을 의연하게 받아들였다. 허미미는 연장전 시작 2분 35초에 메치기를 시도하다가 위장 공격 판정을 받고 아쉽게 반칙패했다.

그로부터 약 50초 전에 상대 크리스타 데구치(캐나다)도 두 번째 지도를 받고 반칙패까지 허미미를 남겨뒀던 터라 더욱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다.

경쟁을 가득 메운 관중도 지도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아쉬움을 퍼붓기도 했다.

이날 공동취재구역에서 허미미는 한국보다 일본 기자들에게 더 오래 붙잡혀 있었다. 십수 명의 기자가 독립운동가 허석(1857~1920) 선생의 5대손인 허미미의 이력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 세례를 쏟았다.

일본 취재진이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결단에 대해 질문하자 허미미는 이번에도 “(그 덕에)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많은 선수와 같이 겨룰 수 있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파리올림픽 유도 여자 57kg급에서 은메달을 딴 허미미가 메달을 만지며 시상대에 올라 있다.

남자골프 메달 사냥 시작된다

내일부터 4일간...여자부는 7일부터
김주형·안병훈 “시상대 오르겠다”
역대 최고 성적은 2016년 11위

2024 파리 올림픽 골프 경기가 8월 1일 남자부 경기부터 시작한다.

올림픽 골프에는 남녀 각 60명씩 출전하며 나흘간 스트로크 플레이를 통해 우승자를 정한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남자부 경기가 8월 1일부터 나흘간 진행되고, 여자부는 8월 7일부터 역시 4라운드 72홀 경기로 치러진다. 대회 장소는 프랑스 파리 인근 르 골프 나쇼날이다.

올림픽 골프는 1904년 이후 정식 종목에서 빠져 있다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여자부 박인비가 금메달을 따냈다.

남자부는 2016년 안병훈과 양정훈이 출전했고, 2021년 도쿄 대회 때는 임성재와 김시우가 출전했으나 모두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

남자부 역대 최고 성적은 2016년 안병훈의 공동 11위다.

올해 대회 남자부에 우리나라는 안병훈과 김주형이 출전한다. 세계 랭킹으로는 김주형이 20위, 안병훈은 32위다.

안병훈은 29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 영향으로 올림픽을 많이 보면서 자랐다”며



안병훈

김주형

“골프가 다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면서 메달의 꿈을 키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주형 역시 “이왕이면 시상대에서 다른 나라 국가보다 애국가를 듣고 싶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연합뉴스